캄보디아 뽀디봉 마을에서 온 편지 ⑧

척박한 땅에 장인의 꿈을 심다



2011년 뽀디봉 초등학교 학생들의 모습. 이 어린 학생들의 혼에는 세계가 경탄하는 문화유산을 빚어낸 찬란한 예술가들의 피가 흐르고 있다.

국제 NGO가 개발도상국과 빈곤 지역을 지원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당장 오늘을 버티게 할 식량과 물을 쥐여주는 것과 내일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식량과 물이 사람을 가까스로 '살게(Survive)' 한다면, 기술과 교육은 비로소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가게(Thrive)' 만듭니다.

2013년 당시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은 이 두 가지 가운데 '마실 물'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많은 재가불자님들의 도움으로 3년간 이 마을에 37개의 우물을 팠습니다. 이로써 열 가구당 한 개꼴로 우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학교 자립을 위해 5년 동안 수익성 좋은 망고, 바나나, 코코넛 나무를 부지런히 심었습니다. 묘목만 심어두면 이내 울창한 숲이 돼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 줄 거라 믿었지만 기대는 6개월간 이어지는 잔혹한 건기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학생들은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교과서도 없이 글을 배우고, 매일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먼 길을 걸어다녔습니다. 통학용 자전거 한 대 없이 비를 흠뻑 맞으며 오가는 어린 학생들의 모습은 수레꾼의 마음을 수없이 미어지게 했습니다.

수레꾼 중학교의 생물교사로 부임한 리 톨바티(Ly Tolvatey) 선생님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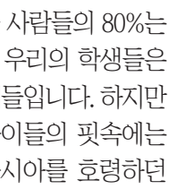
"저는 2011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사 선발시험에 합격, 교사 연수 과정을 수강하고 2013년에 '수레꾼 뽀디봉 중학교'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학교 가는 길이 좋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더 열악했습니다. 우기에는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곤 했는데, 진흙탕으로 변해버린 길에서는 어김없이 내려서 밀고 가야만 했습니다. 한 번은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옷이 온통 진흙투성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토록 학교로 출근하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저는 한 번도 학교 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건기에는 마른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우기에는 거센 빗줄기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수레꾼은 이 열악한 교육환경의 굴레를 근원적으로 끊어낼 확실한 열쇠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현재 뽀디봉 마을 사람들의 80%는 가난한 농부들이며 우리의 학생들은 거의 농부들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아이들의 핏속에는 600년 동안 동남아시아를 호령하던 위대한 앙코르 제국의 혼과 세계가 경탄하는 문화유산을 빚어낸 찬란한 예술가와 장인들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위대한 후손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세운 수레꾼 학교의 낡은 책상 앞에 앉아 반짝이는 눈망울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수레꾼은 당장 이 아이들의 모든 미래를 책임질 수는 없겠지만, 이 척박한 가난의 땅을 딛고 일어설 '농업 기술'과 이들의 혈관에 잠든 예술적 혼을 깨울 '공예 기술'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나 머지않아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당당한 주체로 자라나게 될 아이들. 그들의 미래를 위한 '기술·공예학교 건립'이란 수레꾼의 새로운 꿈이, 거친 흙먼지 길 위에서 이제 아름다운 첫 출발선에 섰습니다.



오시환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대표

사찰음식에 마음을 담다 ④ 화연(華緣)으로 열린 봄, 도량에 스미는 공양의 시간

공양, 마음 나누고 인연 잇는 수행

봄은 소리 없이 꽃으로 먼저 온다. 바람결에 실린 매화 향이 도량을 스치고 지나가면, 가지 끝마다 깃든 작은 생명들이 조용히 세상을 향해 고개를 든다.

겨우내 적막하던 산사의 공기는 서서히 풀리고, 보이지 않던 생명의 기운이 고요히 번져간다.

산사의 시간 속에서 피어나는 꽃들은 말 없는 법문처럼 마음을 부드럽게 일깨운다. 산수유의 노란 빛은 봄의 시작을 알리고, 도량에는 다시 생명의 숨결이 스민다.

스님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길목마다 피어난 꽃들은 수행자의 마음처럼 소박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전하며, 바라보는 이의 마음마저 고요히 물들인다.

어느 날 도량에는 반가운 손님들의 발걸음이 잇따른다. 꽃을 따라, 향기를 따라 찾아온 이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채 이곳에 머문다.

산사를 지키는 세 마리의 개는 꼬리를 흔들며 손님을 맞이하고, 때로는 멧돼지로부터 도량을 지키는 든든한 존재가 되어 봄날의 풍경에 생기를 더한다. 사람과 자연, 생명이 어우러지는 이 장면은 그 자체로 하나의 수행이다.

꽃을 따라 이어진 인연들은 산사에 또 다른 온기를 더한다. 낯선 듯 머물다 어느새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이, 인연은 말없이 깊어지고 따뜻한 기운은 도량 곳곳에 스며든다.

꽃 따라 이어진 인연, 산사 온기 더해

계절 밥상에 순환 이치·생명 질서 담겨

함께하는 사찰 공양, 인연 깊게 가꿔줘

사찰의 공양간에도 새로운 기운이 깃든다. 매화와 진달래, 벚꽃이 산자락을 물들이는 사이, 겨우내 움츠렸던 산나물은 조용히 고개를 든다.

자연은 수행자를 위한 또 하나의 공양을 마련하고, 이 계절의 밥상에는 순환의 이치와 생명의 질서가 고스란히 담긴다.

한 그릇의 음식에는 시간과 정성,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함께 깃든다.

도량에서는 갓 돋은 봄나물로 손님맞이 공양을 정성껏 마련한다. 부지깽이나물을 넣어 끓인 된장국은 속을 따뜻하게 데우고, 두릅은 가볍게 튀겨 올리브오일과 발사믹 소스에 곁들인다. 엄나무 순은 데쳐 고추장 매실청에 버무리고, 머위잎 쌈밥에는 자연의 향을 담아낸다.

함께 산자락을 거닐며 채취한 쑥과 진달래꽃으로 계절의 정취를 더한다. 쑥은 정성껏 다듬어 향긋한 쑥버무리로 빚고, 진달래는 연근을 곱게 갈아 반죽에 더해 은은한 화전으로 완성한다. 더불어 민들레잎과 신선초에는 두유로 만든 마요네즈에 들깨를 곱게 섞어 담백한 샐러드로 빚어낸다.

손님들이 돌아가실 때, 함께 채취한 산나물을 양손 가득 들고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발걸음을 옮기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일 또한 더없는 행복으로 다가온다.

소박한 나눔과 정성 어린 손님맞이는 그 자체로 수행이 되어, 머무는 이들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남긴다. 꽃으로 시작된 인연은 그렇게 산사의 온기 속에서 더욱 깊어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힘을 건넨다.

사찰의 공양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다. 마음을 나누고 인연을 잇는 수행의 한 모습이다. 자연이 내어준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정성을 다시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의미를 배운다.

봄꽃이 피고 지듯 인연 또한 머물다 흘러가지만, 그 순간 함께 나눈 공양의 온기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다. 그 따뜻한 기억은 또 다른 인연으로 이어지며, 산사의 봄은 해마다 더욱 깊어진다.



황수경
루미에르드포레 CEO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⑮ 인자한 할아버지 같은 성자의 집

범어사 독성전의 문은 독특하다. 문 앞 두 기둥 사이에 아치 형태로 된 또 하나의 문이 있다. 무지개 모양의 문틀만 있는, 문 없는 문이다. 통나무를 구부려 만든 문틀의 곡면이 창방과 기둥을 만나 이룬 세모꼴의 벽체에는 탐스럽게 핀 모란이 돋을새김되어 있다. 그런데 그 꽃은 그냥 피어 있는 게 아니다. (어릴 적 숨은그림찾기에 재능을 보인 사람이라면 금방 찾겠지만) 두 사람이 머리 위로 팔을 뻗어 꽃을 받치고 있다. (마주 보았을 때) 왼쪽은 선여인, 오른쪽은 선남자다. 우리를 대신하며 꽃을 '받쳐', 우리로 하여금 꽃을 '바치는' 공덕을 짓게 하니, 이 선남선녀야말로 정녕 보살이다.

무지개 문틀 안 진짜 문에는 격자 빗살이 교차하는 곳마다 활짝 핀 매화꽃을, 문살에는 잎사귀를 새겨 올렸다. 안에 어떤 분이 계시기에 이렇게 지극한 정성을 들였을까.

독성전 안에 계신 분은 '나반존자'다. 한국불교에서는 나한 가운데서 신통이 제일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 나한은 아라한을 줄인 호칭인데 한역으로는 마땅히 공양 받을 만한 분이라 하여 '응공', 번뇌라는 적을 다 물리쳤다 하여 '살적', 배워야 할 바를 모두 이루어 마쳤다 하여 '무학'이라고도 한다. 수행의 차원에서는 깨달아 마쳤지만 부처는 아닌, 불보살과 인간 사이의 성자가 아라한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한상은 어떤 때를 써도 다 들어줄 것 같은 인자한 할아버지 모습이다. 나한신앙의 매력이 거기에 있다.

손영자 작가



범어사 독성전.

BTN 불교TV의 명강의 컬렉션
스테디셀러 콘텐츠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